

‘파리올림픽 사격 10m 공기권총 은메달’ 김예지 “힘이 돼준 임실군에 감사드려요”

“내달 2일 있을 25m 권총 경기에서도 최선 다할 것”
심민 군수 “군민 모두가 선전 기원하며 함께 응원”

“임실군청 소속 선수로 7년째 몸담 으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심 민 군수님 과 임실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있을 25m 권총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지난 28일 열린 파리올림픽 여자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임실군청 소속 이은바 ‘엄마사 수’ 김예지(31) 선수의 전언이다.

도내에서 첫 올림픽 메달을 안겨준 김 선수는 은메달을 딴 후 임실군청 사격팀 관민수 감독을 통해 임실군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선수는 이날 예선 578점 5위의 기록으로 결선에 진출했고, 결선에서 241.3점을 획득하여 최종 2위로 경기를 마쳤다.

경기 내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차분한 모습과 일관된 집중력을 선보이며 당당히 은메달을 차지,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 선수와 임실군이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18년 초. 그해 말 결혼과 육아로 선수 생활을 잠시 접었지만, 새로

부임한 관민수 감독의 적극적인 권유로 2019년 4월 복귀했다.

관 감독은 “전주대학교 등에서 사격 감독을 하다가 임실군청 감독을 맡게 되어 김 선수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다”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째 같은 실업팀에서 활동하는 건 쉽지 않은데 누구보다 심 민 군수님의 도움이 컸다”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키우면서도 주말에도 거의 쉬지 않고 훈련에만 매진했다”며 “그 결과 2022년부터 기록이 올라가면서 최종 국가대표로 선발됐는데, 주종목이 아닌 10m에서 은메달을 따게 될 줄을 몰랐다”고 전했다.

지난해 각종 국내대회에서 입상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김예지 선수는 지난 ISF 버뮤다 월드컵 사격대회(24년 5월 개최)에서 25m 화약권총 1위의 기록을 달성, 25m 메달 기대주로 급부상했다. 당시 대회에서 10m 공기권총 부문에서도 2위를 차지했지만, 메달 획득이 기대되는 주 종목은 25m였다.

김 선수는 “남은 종목에서도 대표팀의 다른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르겠다”며 “국가대표 사격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



제33회 파리올림픽 여자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임실군청 소속 김예지 선수가 값진 은메달을 따냈다.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 당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선전을 당부했던 심민 군수와 김예지 선수. (사진=임실군청 제공)

이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제2의 고향인 임실을 알리는 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김예지 선수의 은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김 선수는 임실군청 사격팀의 자랑이며, 이러한 성과는 꾸준한 훈련과 피나는 노력, 열정의 밑바탕에서 이루어 낸 값진 결실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있을 25m 권총 경기에서도 더 나은 모습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길 희망하며, 임실군민 모두가 김 선수의 선전

을 기원하며 함께 응원하겠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관영 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임실군청 소속인 김예지 선수가 올림픽 사격 은메달을 획득해 정말 자랑스럽다”라며 “김예지 선수의 주 종목인 25m 경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파이팅”이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 김예지 선수는 8월 2일 주 종목인 25m 화약권총 대회에 출전하여 다시 한번 메달 획득에 도전하게 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안세영, 올림픽 금메달 여정 시작

배드민턴 여자 단식 A조 조별 예선 1차전서 압승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안세영은 28일(한국시각) 오후 10시40분 프랑스 파리의 포르트 드 라사렐 아레나에서 열린 배드민턴 여자 단식 A조 조별 예선 1차전에서 투마니아의 칼로야나 날 반토바(세계랭킹 74위)를 2-0(21-15 21-11)으로 꺾었다.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식과 여자 단 복식을 모두 제패해 2관왕에 오른 안세영은 명실상부 배드민턴 최강자다. 현재 세계랭킹 역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항저우 대회 결승전 당시 라이벌 천위웨이(중국)와 치열한 승부를 펼치다가 다친 무릎 때문에 이전보다 경기력이 하락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안세영은 여전히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뽑힌다.

안세영은 이날 대회 첫 경기에서도 역시 압도적인 기량을 자랑했다. 경기 초반에는 조금 몸이 덜 풀



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게임 초반 3-5까지 끌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9-9 동점을 이룬 뒤 역전에 성공했고, 21-15까지 점수를 벌리며 1게임을 가져왔다.

1게임을 잡은 안세영은 2게임은 더욱 수월하게 풀어갔다.

강한 스매싱과 센스 있는 네트 플레이로 상대 체력을 거덜 냈고, 1게임보다 더욱 압도적인 점수, 21-11로 마무리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경기장을 찾은 한국 교민들이 큰 소리로 응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올림픽 첫 경기를 기분 좋게 잡은 안세영은 다음 달 1일 오전 2시30분 프랑스 체체페이(세계랭킹 53위)와 2차전을 치른다. /뉴시스

“비판·지적 겸허히 받아들일겠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지휘봉을 잡은 각오를 밝히며 달라질 대표팀을 약속했다.

홍 감독은 29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에서 “지금 한국 축구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라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도전을 결심했다.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한국 축구가 진전하는 데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탈락 이후 위르겐 전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축구협회는 지난 13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홍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

홍 감독은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 유럽으로 떠나 외국인 코치 면접과 대표팀 선수 면담을 진행하고 돌아와 취임 기자회견에 나섰다.

먼저 홍 감독은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과정을 “지난 7월5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와 만나 긴 대화를 나눴다. 대표팀 감독과 축구협회 전무를 하며 평소 가지고 있던 축구 철학, 대표팀 운영 방안, 각급 대표팀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는 이러한 의견을 듣고



감독직을 요청했고 반재위 고민한 끝에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축구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있다. 4년 주기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 축구가 국가대표팀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시기가. 축구협회가 발표한 ‘MIK(Made In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체계를 수립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과 축구협회를 향한 거센 비판에 대해 “대표팀은 성적으로 표현되는 결과와 장기적인 발전 체계의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따듯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듣고 또 들으면서 한국 축구가 진전하는 데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한국 여자 양궁 올림픽 10연패

임시현 등 3인, 단체전 결승

한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단체전 10연패를 달성했다.

임시현, 전현영, 남수현으로 꾸려진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은 29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의 레장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중국을 5-0으로 꺾어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단체전이 채택된 1988년 서울 대회 이후부터 여자 양궁 대표팀은 10연패라는 위업을 이뤄냈다.

전현영의 10점으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인 한국은 어렵지 않게 1세트에서 승리를 거뒀다.

여자 양궁 대표팀은 4-0으로 확실한 우위를 점한 분위기에 3세트 첫 발은 8점, 9점, 8점으로 다소 부진했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장발리드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 한국과 중국 경기에서 5-0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확정 지은 임시현, 전현영, 남수현이 환호하고 있다.

이어진 4세트에서 전현영이 10점을 쏘며 분위기 반전의 기쁨을 마련하는 듯했다. 하지만 남수현, 임시현이 연속으로 8점을 맞으며 어려운 상황을 맞

았다. 이후 결과를 뒤집지 못했고 경기는 5-0으로 이어졌다.

남수현은 9점을 쏘고 임시현, 전현영의 화살은 10점 라인에 걸렸다. 중국

은 전부 9점을 쏘며 27점을 기록했다.

임시현과 전현영의 화살이 10점으로 최종 판정 받으면서 한국의 10연패가 결정됐다. /뉴시스

